

8
2016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농정 이슈

중국의 유제품 시장 ·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8

소비자물가 20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21

대 세계 식량 수출입 23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6

주요 단신

농정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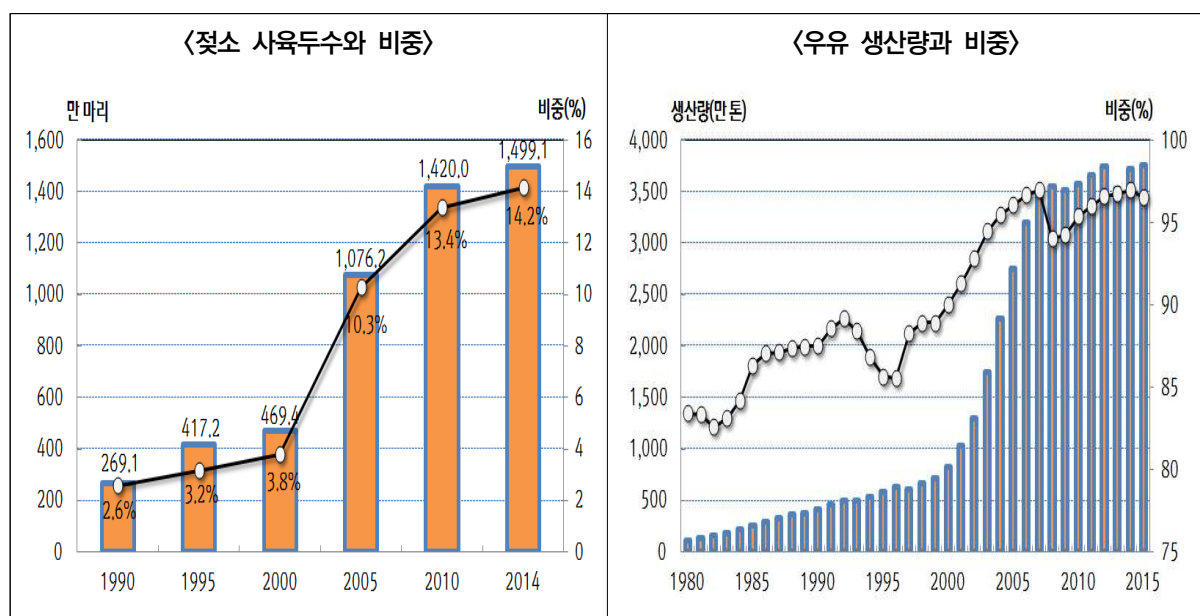
◆ 중국의 유제품 시장 ·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유제품 시장 동향

□ 생산 동향

- 중국의 전체 소 사육두수에서 젖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우유 생산량도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
 - 젖소 사육두수는 1990년 269만 마리에서 2014년 1,499만 마리로 5.6배 증가. 전체 소 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2.6%에서 14.2%로 증가
 - 우유(牛奶) 생산량은 1990~2015년 동안 416만 톤에서 3,755만 톤으로 9배 증가. 전체 유류(奶类)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5%에서 96.5%로 증가

그림 1 중국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国家统计局, 「中国农村统计年鉴」 각 연도; 农业部市场预警专家委员会, 「中国农业展望报告(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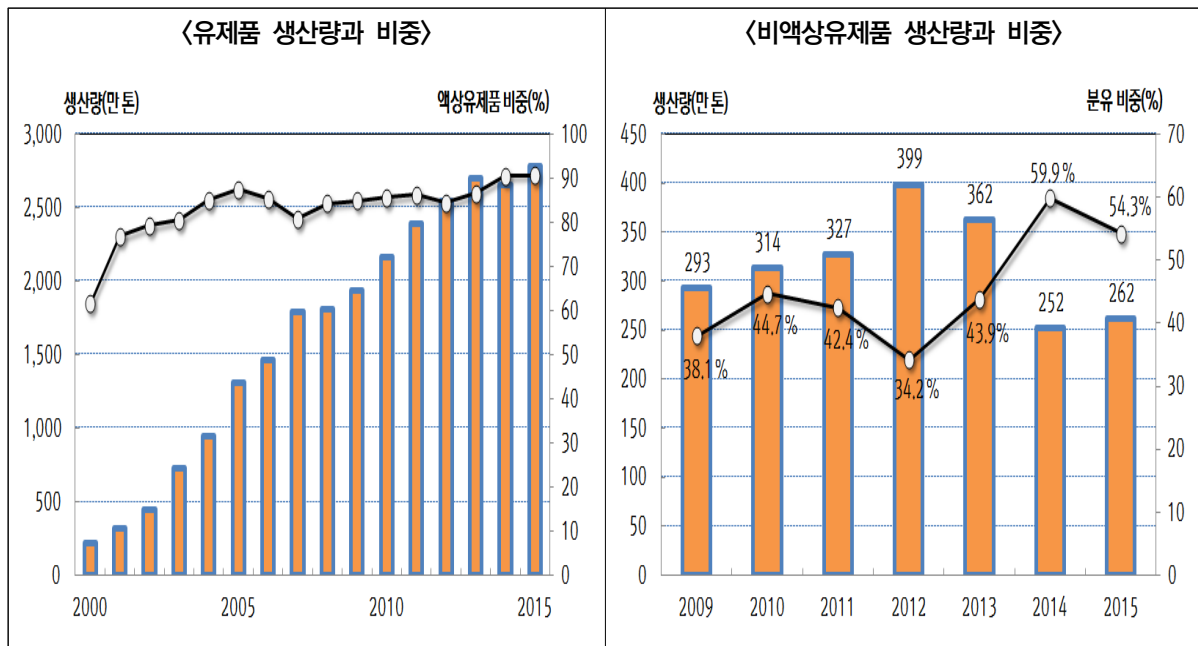
[참고] 중국의 유류(奶类) 생산 전망

- **2016년 전망:** 2014년 말과 2015년 초 과잉 공급 현상으로 다수의 중소규모 축산농가가 퇴출되었고 수익성 하락으로 대규모 사육장의 생산 확대 가능성도 적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3,879만 톤 전망
- **향후 10년 전망(2016~2025):** ‘13.5 계획’ 기간(2016~2020년) 동안 축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낙농업이 정체국면을 벗어나 안정적 성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4,200만 톤 생산 전망. 이후 낙농업의 계열화현대화 진전 및 경쟁력 향상으로 2025년 4,500만 톤 생산 전망
 - (생산량 증가율) 장기적으로 환경제약 및 자원결핍의 영향을 받아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이 과거 10년 동안의 3.1%에서 1.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자료 출처: 农业部市场预警专家委员会, 「中国农业展望报告(2016-2025)」

- 중국소비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유제품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2015년 동안 유제품 시장 규모는 17배 증가
 - 유제품 생산량은 2000년 217만 톤(액상유제품 134만 톤, 비액상유제품 83만 톤)에서 2015년 2,783만 톤(액상유제품 2,521만 톤, 비액상유제품 262만 톤)으로 12.8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18.5%)¹⁾
 - 유제품 생산기업의 매출액이 2000년 193억 위안에서 2014년 3,298억 위안으로 연평균 22.5% 증가

그림 2 중국의 유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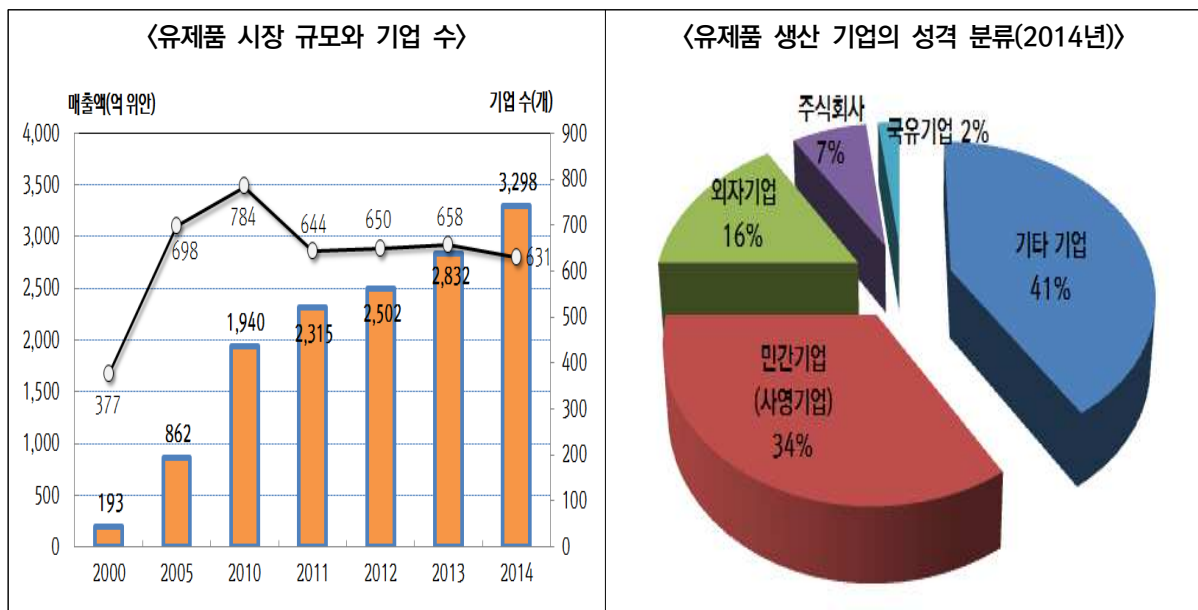


자료: 荷斯坦杂志和东方戴瑞咨询编, 「2015中国奶业统计资料」; 农业部市场预警专家委员会, 「中国农业展望报告(2016-2025)」

1) 비액상유제품 생산량 통계에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포함되지 않음.

- 유제품 생산기업 수는 2010년 784개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4년 631개로 감소(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기업은 2014년 기준 93개). 국유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2%), 민간기업(사영기업; 34%)과 외자기업(1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중국을 대표하는 3대 유제품 기업(상장기업)인 이리(伊利), 명뉴(蒙牛), 광밍(光明)의 2014년 기준 시장점유율(CR₃)은 37.9%로 유제품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

그림 3 중국의 유제품 시장 규모와 기업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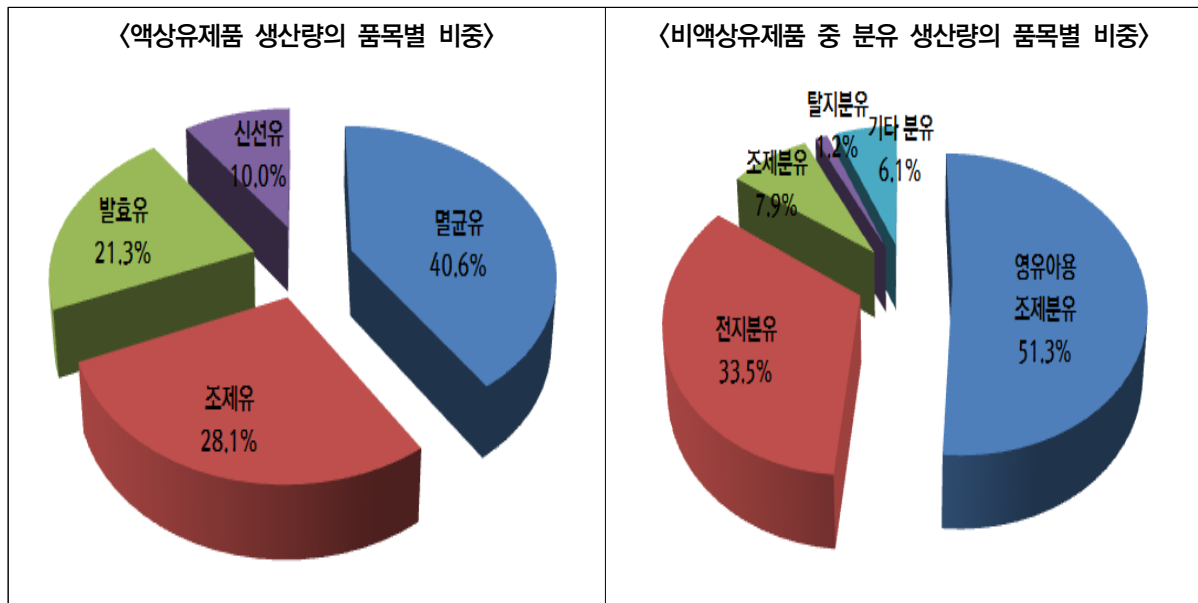
자료: 荷斯坦杂志和东方戴瑞咨询编, 「2015中国奶业统计资料」

○ 유제품 시장의 품목류별 구성은 액상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온 살균유(신선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초고온 멸균유와 조제유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²⁾

- 2014년 유제품 생산량 중 액상유제품과 비액상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0.5%와 9.5%
- 액상유제품의 품목별 비중은 초고온 멸균유가 약 40.6%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각종 조제유 28.1%, 발효유 21.3%, 저온 살균유(신선유) 10% 순
- 비액상유제품 생산량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분유로 2015년 기준 54.3%(142만 톤).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포함한 분유의 품목별 비중은 영유아용 조제분유가 약 51.3%로 가장 크고, 전지분유 33.5%, 각종 조제분유 7.9%, 탈지분유 1.2%, 기타 분유 6.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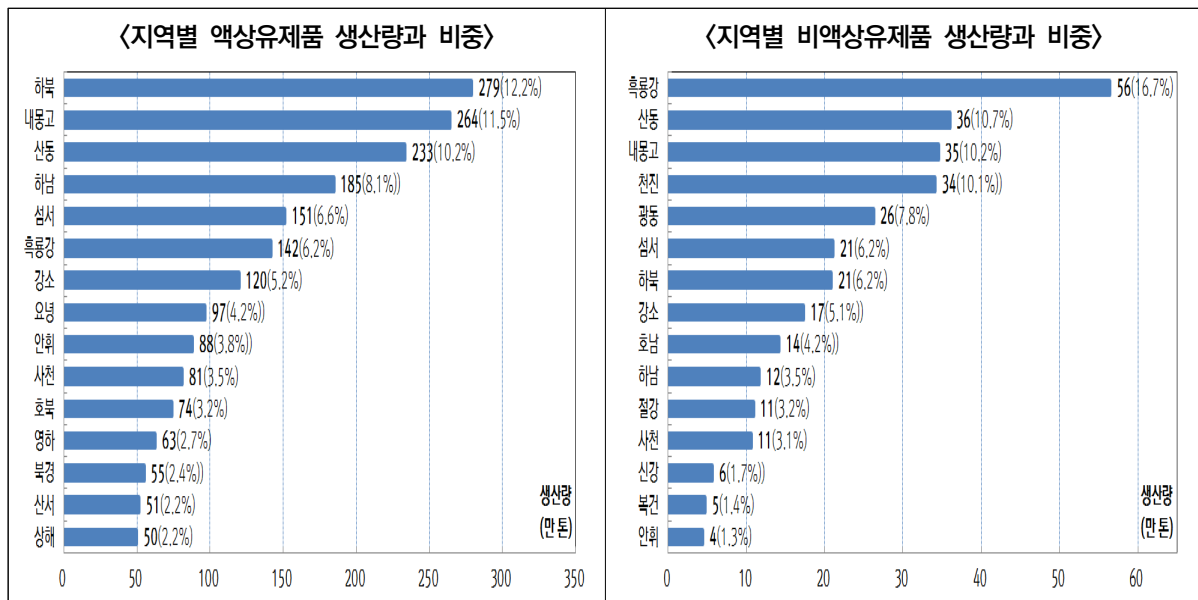
2) 유제품은 크게 액상유제품, 비액상유제품, 기타 유제품으로 구분. 여기서 액상유제품은 저온 살균유(신선유), 초고온 멸균유, 조제유(아상 HS 0401류), 발효유(HS 0403류), 비액상유제품은 분유(조제분유 포함, HS 0402류), 영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10), 유장(HS 0404류), 버터(HS 0405류), 치즈와 커드(HS 0406류), 기타 유제품은 카세인(HS 3501.1000), 밀크 알부민(HS 3502.2000)을 포함함.

그림 4 중국의 유제품 생산량의 품목별 비중(2014년)



자료: 中国食品工业年鉴编辑委员会编, 「2015中国食品工业年鉴」

그림 5 중국의 지역별 유제품 생산량과 비중(2012~2014년 3개년 평균)



자료: 荷斯坦杂志和东方戴瑞咨询编, 「2015中国奶业统计资料」

- 유제품 주산지는 주로 북부지역에 위치하며, 허북성, 내몽고, 산둥성, 흑룡강성, 허남성이 5대 주산지
- 액상유제품 5대 주산지는 허북성, 내몽고자치구, 허남성, 산둥성, 흑룡강성. 2000~2014년 동안 지역 집중도지수 CR₅와 CR₁₀이 각각 65.6%, 85.7%에서 47.2%, 70.2%로 감소하여 주산지가 확대되는 추세

- 비액상유제품의 5대 주산지는 흑룡강성, 천진시, 섬서성, 내몽고자치구, 광둥성. 2000~2014년 동안 지역집중도지수 CR_5 와 CR_{10} 이 각각 61.4%, 81.3%에서 65.4%, 83.3%로 다소 증가

□ 소비 동향

-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³⁾은 약 33kg(2015년)로 세계 평균의 1/3 수준이며, 도농 간 소비 격차도 현저
 - 2015년과 2016년 중국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2016년 33.7kg, 2020년 37.1kg, 2025년 40.5kg(액상·비액상 유제품 직접소비 약 26kg, 간접소비 약 15kg)으로 증가 전망
 - 도시와 농촌의 2015년도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각각 약 41kg과 약 22kg 수준이며, 2024년에는 각각 46.3kg과 27.6kg으로 증가할 전망(소비량 격차가 18kg 수준으로 축소 전망)
 - 2014년도 액상유제품의 1인당 소비량은 약 18kg 수준으로 우리나라 소비량(백색시유와 가공시유: 32.5kg)의 약 55% 수준
- 액상유제품의 소비는 냉장 유통 및 보관의 문제로 인해 멸균유 위주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신선유(살균유) 소비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액상유제품 소비시장은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저온 살균유(신선유) 약 41%, 조제유 약 28%, 발효유 약 21%, 저온 살균유(신선유) 약 10%로 세분
 - 그러나 최근 들어 멸균유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맛·영양(건강)기능을 갖춘 각종 조제유(가공시유)와 저온 살균유(신선유)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냉장 유통 및 보관 조건의 차이로 인해 도시지역은 주로 액상유제품, 농촌지역은 주로 분유 위주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농촌지역의 유통조건이 개선되면서 멸균유, 살균유 등 액상 유제품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비액상유제품의 소비는 영유아용 조제분유 소비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2008년 중국산 영유아용 조제분유 멜라민 검출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산 선호 경향이 소비 트렌드로 정착
 - 2014년 영유아용 조제분유 시장규모는 약 683억 위안으로 이 중 온라인 시장규모는 약 174억 위안 (25.5%)을 차지하며 B2C 플랫폼과 C2C 플랫폼이 각각 약 58%와 약 42%를 차지
 - 대표적인 B2C 플랫폼 중 하나인 징둥(京东)의 상위 10개 브랜드 중 1~8위가 외국브랜드이며, 상위 3개 브랜드의 거래액이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1/3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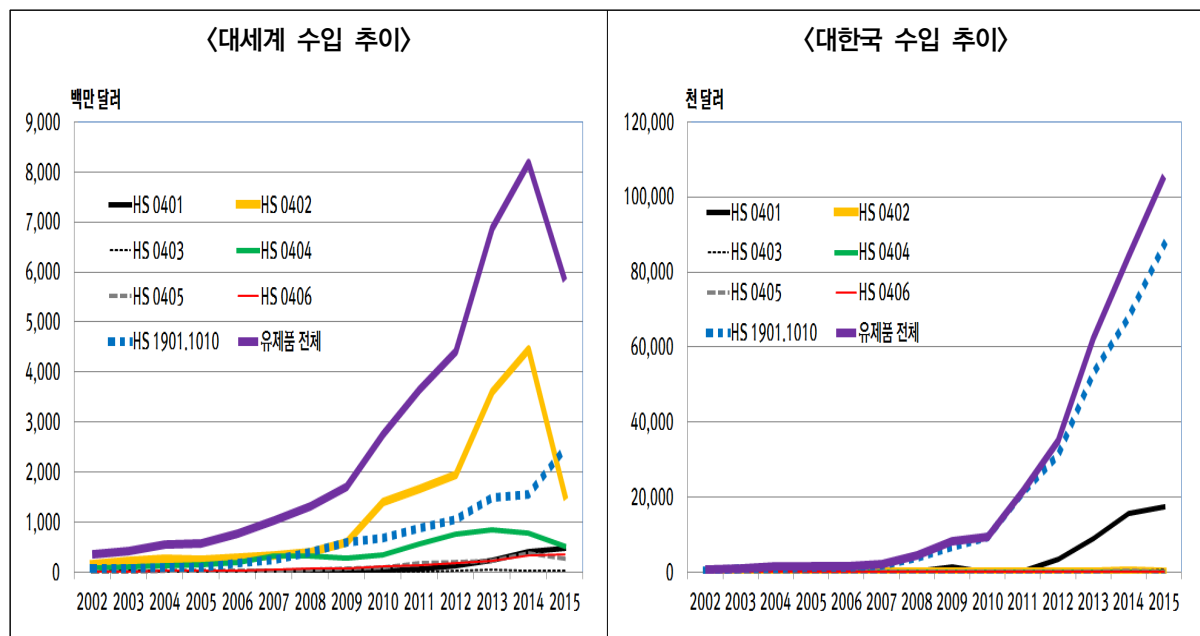
3) 액상 및 비액상 유제품 이외에 식품에 포함된 유제품(유류 음료,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을 모두 포함한 소비량

- 중국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영양·건강 관련 정보 획득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액상유제품 소비 위주에서 벗어나 치즈, 버터 등 비액상유제품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수출입 동향

- WTO 가입 이후 유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대폭 증가
 - 유제품 수입액이 WTO 가입 직후인 2002년 3.5억 달러에서 2014년 81.9억 달러로 23배 증가. 2002~2008년 동안 4배 증가한데 비해 멜라민 분유 사건 발생 이후 2008~2014년 동안 6배 증가
 - 한편 2015년도 유제품 수입액이 2014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TBT 조치 강화 등의 요인으로 최대 수입 품목인 분유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그림 6 중국의 유제품 품목별 대세계 및 대한민국 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 최대 수입 품목은 분유(HS 0402)와 영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10)로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인한 중국소비자들의 국내산 분유에 대한 불신 경향 반영
 - 유제품 품목별 수입액(2013~2015년 평균) 비중을 보면 분유(HS 0402)가 4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10) 26.3%, 유장(HS 0404) 10.4%, 우유(HS 0401) 5.4%, 치즈(HS 0406) 4.4%, 버터(HS 0405) 4.2%, 밀크알부민(HS 3502.2000) 2.6%, 발효유(HS 0403) 0.5% 순

- 분유(주로 벌크포장의 원료)는 국내산 유류(奶類)와 분유 제품에 대한 불신, 관세율 하락, 국내외 가격차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줄곧 최대 수입 품목의 지위를 유지
- 특히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수입이 대폭 증가해 2014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중국정부의 TBT 조치(포장, 증명 등) 강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2015년 수입량이 전년대비 65.7%나 감소
-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분유에 이어 제2의 수입 품목으로 역시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분유를 제치고 수입액 기준 최대 수입 품목으로 부상

표 1 중국의 유제품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품목	수입				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4/'02	'15/'13	'04/'02	'15/'13	'04/'02	'15/'13	'04/'02	'15/'13
HS 0401 우유	3,622 (1.1)	321,443 (17.6)	2,959 (0.7)	375,731 (5.4)	28,544 (48.7)	25,424 (67.4)	19,744 (29.9)	24,577 (34.0)
HS 0402 분유	130,781 (40.6)	784,938 (42.9)	217,440 (49.5)	3,197,770 (45.9)	22,995 (39.2)	8,334 (22.1)	30,153 (45.7)	26,557 (36.8)
HS 0403 발효유	826 (0.3)	9,744 (0.5)	965 (0.2)	34,860 (0.5)	389 (0.7)	540 (1.4)	378 (0.6)	560 (0.8)
HS 0404 유장	159,047 (49.3)	424,752 (23.2)	103,380 (23.5)	721,432 (10.4)	671 (1.1)	307 (0.8)	557 (0.8)	1,222 (1.7)
HS 0405 버터	9,588 (3.0)	67,988 (3.7)	15,982 (3.6)	289,872 (4.2)	178 (0.3)	1,682 (4.5)	207 (0.3)	5,256 (7.3)
HS 0406 치즈	4,797 (1.5)	62,957 (3.4)	12,374 (2.8)	307,150 (4.4)	568 (1.0)	135 (0.4)	1,537 (2.3)	979 (1.4)
HS 1901.1010 영유아용 조제분유	11,647 (3.6)	140,045 (7.6)	74,795 (17.0)	1,832,616 (26.3)	574 (1.0)	423 (1.1)	907 (1.4)	4,987 (6.9)
HS 3501.1000 카세인	1,264 (0.4)	3,042 (0.2)	5,565 (1.3)	29,478 (0.4)	4,677 (8.0)	712 (1.9)	12,505 (18.9)	6,371 (8.8)
HS 3502.2000 밀크알부민	795 (0.2)	16,364 (0.9)	5,995 (1.4)	179,103 (2.6)	1 (0.0)	155 (0.4)	6 (0.0)	1,725 (2.4)
합 계	322,365 (100.0)	1,831,272 (100.0)	439,454 (100.0)	6,968,013 (100.0)	58,596 (100.0)	37,712 (100.0)	65,995 (100.0)	72,2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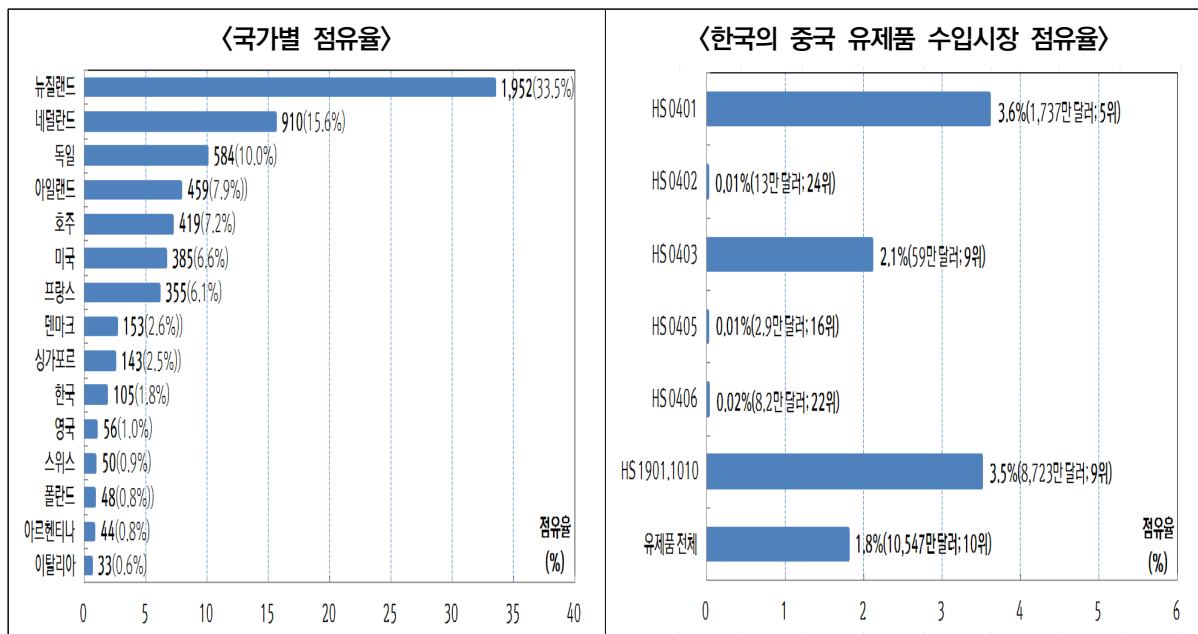
주: 물량과 금액은 모두 2002~2004년 3개년 평균치와 2013~2015년 3개년 평균치이며, ()안의 수치는 비중임.
 자료: 海关总署, 「中国海关统计年鉴」 각 연도;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 한편 유장은 2007년 수입액 비중이 30.8%로 분류에 이어 제2의 수입 품목이었으나 이후 점차 수입이 감소하여 2015년 9.0%로 하락. 반면 우유는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8.3%까지 증가

○ 유제품 수입은 낙농업이 발전한 오세아니아와 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국가별로는 뉴질랜드가 중국 유제품 수입시장의 1/3 이상 차지

- 유제품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뉴질랜드가 33.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15.6%, 독일 10.0%, 아일랜드 7.9%, 호주 7.2%, 미국 6.6%, 프랑스 6.1%, 덴마크 2.6%, 싱가포르 2.5%, 한국 1.8% 순
- 중국의 유제품 수입 지역집중도는 CR₃가 59.1%, CR₆가 74.1%, CR₁₀이 93.7%로 높은 편
- 중국과 FTA를 체결한(2013.1.1. 발효) 뉴질랜드는 최대 수입 품목의 하나인 수입 분류시장에서 압도적인 (78.3%)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발효유·버터·치즈·카세인도 1위, 우유, 영유아용 조제분유, 밀크알부민은 각각 2위, 4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유제품 수입대상국
- 제2위의 유제품 수입대상국인 네덜란드는 최대 수입 품목인 수입 영유아용 조제분유시장에서 1위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3위의 유제품 수입대상국인 독일은 수입 생우유시장에서 1위를 차지
-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02년 69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547만 달러로 대폭 증가. 이 중 영유아용 조제분유가 8,723만 달러로 82.7%, 우유가 1,737만 달러로 16.5% 차지
- 중국의 수입 유제품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10위 차지. 품목별로 보면 영유아용 조제분유시장과 생우유시장의 점유율이 각각 3.5%(9위)와 3.6%(5위) 차지

그림 7 중국 수입 유제품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현황(2015년)



주: 국가별 점유율은 수입 금액(백만 달러)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표 2 중국 수입 유제품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순위(2015년)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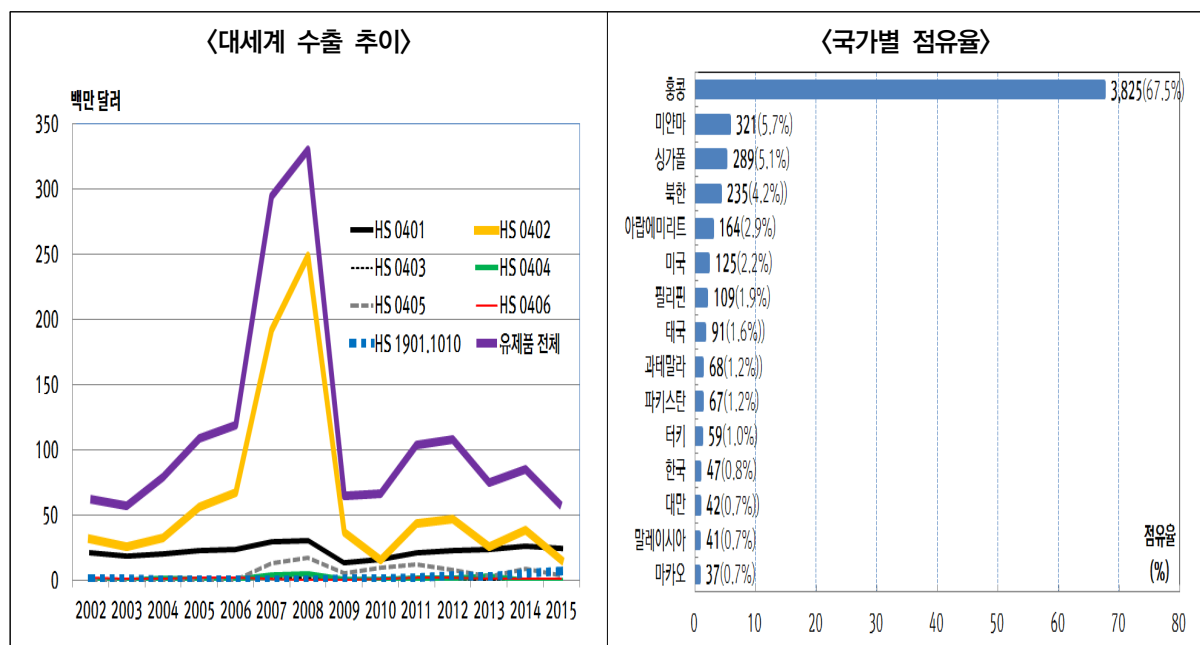
순위	HS 0401(우유)			HS 0402(분유)			HS 0403(발효유)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독일	152,008	31.4	뉴질랜드	1,197,415	78.3	뉴질랜드	9,556	34.4
2	뉴질랜드	115,141	23.8	호주	108,168	7.1	독일	4,499	16.2
3	프랑스	67,970	14.0	미국	59,613	3.9	스페인	3,978	14.3
4	호주	64,790	13.4	독일	37,211	2.4	스위스	3,389	12.2
5	한국	17,370	3.6	네덜란드	32,685	2.1	호주	1,850	6.7
6	영국	14,245	2.9	프랑스	32,645	2.1	대만	1,602	5.8
7	이탈리아	13,293	2.7	아일랜드	13,721	0.9	프랑스	749	2.7
8	폴란드	7,471	1.5	핀란드	10,731	0.7	미국	655	2.4
9	덴마크	5,365	1.1	스웨덴	7,971	0.5	한국	592	2.1
10	벨기에	4,683	1.0	덴마크	6,340	0.4	폴란드	415	1.5
합계		462,336	95.4		1,506,500	98.5		27,285	98.3
순위	HS 0404(유장)			HS 0405(버터)			HS 0406(치즈)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181,440	34.5	뉴질랜드	212,626	80.1	뉴질랜드	161,715	46.5
2	프랑스	88,081	16.8	프랑스	19,878	7.5	호주	64,773	18.6
3	네덜란드	41,495	7.9	호주	11,088	4.2	미국	53,413	15.4
4	독일	40,318	7.7	벨기에	9,488	3.6	프랑스	13,927	4.0
5	아르헨티나	34,000	6.5	아르헨티나	3,822	1.4	이탈리아	12,820	3.7
6	아일랜드	30,762	5.9	덴마크	3,378	1.3	덴마크	12,649	3.6
7	폴란드	30,737	5.8	네덜란드	2,514	0.9	독일	6,456	1.9
8	핀란드	21,289	4.1	이탈리아	991	0.4	네덜란드	4,687	1.3
9	뉴질랜드	14,519	2.8	아일랜드	723	0.3	우루과이	4,125	1.2
10	호주	12,937	2.5	스페인	471	0.2	아르헨티나	2,971	0.9
합계		495,578	94.3		264,979	99.8		337,536	97.0
순위	HS 1901.1010(영유아용조제분유)			HS 3501.1000(카세인)			HS 3502.2000(밀크알부민)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네덜란드	811,383	32.8	뉴질랜드	25,655	80.8	독일	46,164	30.5
2	아일랜드	407,970	16.5	아일랜드	2,843	9.0	미국	42,767	28.2
3	독일	297,186	12.0	인도	1,792	5.6	뉴질랜드	20,152	13.3
4	뉴질랜드	195,182	7.9	미국	453	1.4	덴마크	18,884	12.5
5	호주	150,407	6.1	독일	433	1.4	네덜란드	13,692	9.0
6	싱가포르	139,769	5.7	폴란드	193	0.6	호주	4,855	3.2
7	프랑스	131,533	5.3	우크라이나	191	0.6	캐나다	3,026	2.0
8	덴마크	95,665	3.9	이탈리아	92	0.3	프랑스	622	0.4
9	한국	87,266	3.5	프랑스	18	0.1	아르헨티나	504	0.3
10	미국	45,225	1.8	싱가포르	18	0.1	폴란드	422	0.3
합계		2,361,586	95.6		31,688	99.8		151,088	99.8

자료: 海关总署, 「中国海关统计年鉴」 각 연도;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 WTO 가입 이후 분유를 주력 품목으로 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수출이 급감하여 정체 추세

- 유제품 수출액이 2002년 6,251만 달러에서 2008년 3억 3,030만 달러로 5.3배 증가. 그러나 2008년 이후 분유 수출 급감으로 7천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2015년 기준 수출액은 수입액의 1% 수준)
- 분유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 2008년 유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2%를 차지했으나 이후 수출이 급감하였고 2015년에는 우유에 이어 제2위 품목(27.2%)으로 전락
- 우유도 2008년에 최고 수출액(3천만 달러)을 기록한 후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점차 회복하여 2.5천만 달러 내외 수출. 2015년에 분유를 제치고 최대(42.7%) 수출 품목으로 부상
- 유제품 수출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국가별로는 홍콩이 최대의 수출시장(2015년 기준 수출액의 67.5% 차지). 우리나라는 제12위의 수출시장으로 점유율은 0.8% 수준

그림 8 중국의 유제품 품목별 수출 추이 및 국가별 점유율 현황



주: 국가별 점유율은 수입 금액(만 달러)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 생산비 및 가격 동향

○ 중국의 젖소 사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및 사료비의 증가가 사육비 상승을 주도

- 2006~2014년 동안 마리당 사육비는 2.8배 증가(한국의 경우 1.7배 증가).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및 사료비는 각각 4.9배, 3.3배, 2.8배 증가

○ 중국의 1당 우유 생산비는 우리나라의 약 70% 수준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비 격차가 완만하게 축소되는 추세

－ 한중 간 우유 생산비 격차는 2006년 2.37:1에서 2014년 1.44:1로 축소

표 3 한국과 중국의 젖소 사육비 및 우유 생산비 비교(2014년)

단위: 원/마리, 1, 원/100l

구분		한국 (A)	중국					
			전국 평균		주산지: 내몽고자치구		주산지: 흑룡강성	
			(B)	A/B	(C)	A/C	(D)	A/D
마리당 총수입	우유판매	9,354,000	4,003,994	2.34	3,911,015	2.39	3,440,665	2.72
	부산물수입	376,000	381,699	0.99	548,483	0.69	303,840	1.24
	산유량(ℓ)	8,954	5,716	1.57	5,514	1.62	5,759	1.55
	총수입	9,730,000	4,385,693	2.22	4,459,497	2.18	3,744,505	2.60
마리당 사육비	사료비	4,019,566	2,314,883	1.74	2,577,777	1.56	1,811,562	2.22
	수도광열비	105,501	53,940	1.96	55,751	1.89	12,796	8.24
	방역치료비	150,819	31,443	4.80	39,268	3.84	23,328	6.47
	수선비	92,563	10,968	8.44	12,310	7.52	1,854	49.93
	제재료비	81,889	10,824	7.57	7,916	10.34	1,910	42.87
	임차료	30,864	—	—	—	—	—	—
	감가상각비	1,221,674	396,597	3.08	354,815	3.44	284,373	4.30
	기타비용	311,876	117,381	2.66	121,600	2.56	38,855	8.03
	노력비	1,085,047	501,365	2.16	490,555	2.21	390,285	2.78
	—자가노력	949,167	52,925	17.93	153,941	6.17	126,372	7.51
	—고용노력	135,880	448,441	0.30	336,614	0.40	263,913	0.51
	자본용역비	143,172	8,752	16.36	39,573	3.62	988	144.91
	토지용역비	64,683	14,109	4.58	3,560	18.17	4,971	13.01
	일반비	6,150,632	3,384,478	1.82	3,506,051	1.75	2,438,590	2.52
	사육비	7,307,654	3,460,264	2.11	3,703,125	1.97	2,570,922	2.84
마리당 수익	소득	3,579,368	1,001,215	3.58	953,446	3.75	1,305,915	2.74
	순수익	2,422,346	925,430	2.62	756,372	3.20	1,173,583	2.06
우유 100ℓ 당	경영비	64,492	52,533	1.23	53,637	1.20	37,068	1.74
	생산비	77,414	53,859	1.44	57,211	1.35	39,366	1.97
	판매가격	104,467	70,049	1.49	70,929	1.47	59,744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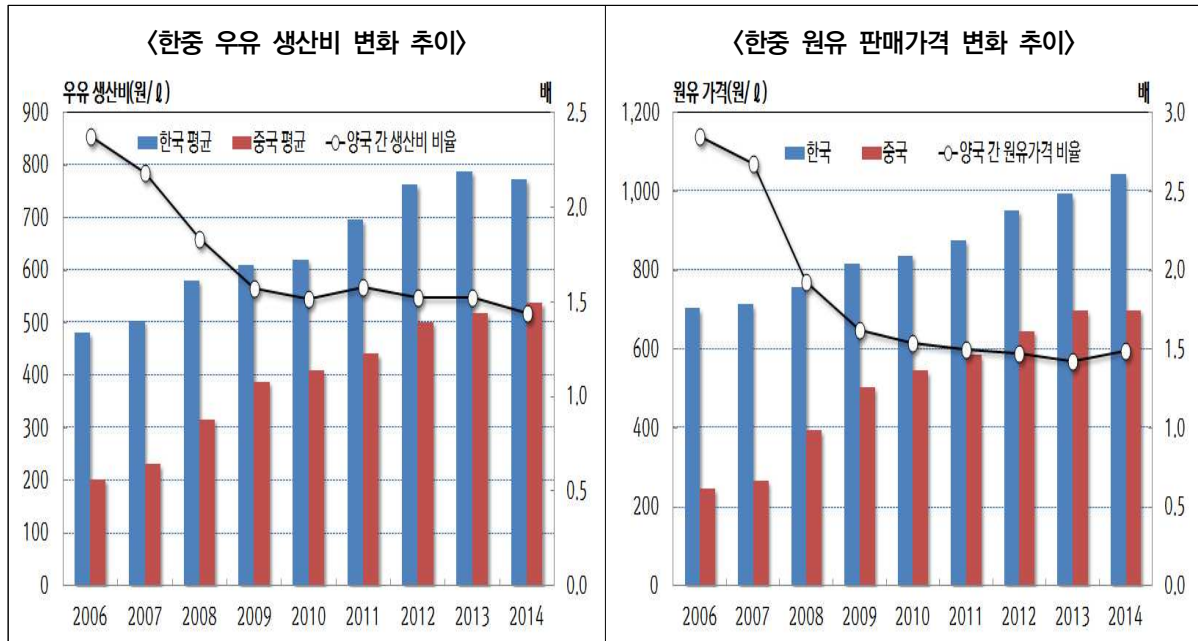
주 1. 중국은 사육규모가 중간인 젖소 기준이며, 환율은 2014년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2. 한국의 경우 총수입 중 부산물수입에 기타수입이 포함되었음.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농림어업; <http://www.kosis.kr>);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编, 「2015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그림 9

한국과 중국의 우유 1 당 생산비 및 판매가격 변화 추이



주: 환율은 연도별 평균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농림어업; <http://www.kosis.kr>);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 연도

2. 유제품 관련 정책 동향

□ 식품안전 정책 동향

- 곰팡이 분유(2004년), 멜라민 분유(2008년) 등 2000년대 들어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식품 안전사고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 차원에서 2009년 「식품안전법」 제정
 -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식품위생법」(1995년 제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확립된 식품안전 관련 제도의 결함이라고 판단
 - 「식품위생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한 끝에 2009년 2월 「식품안전법」을 공포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 이러한 조치는 식품안전정책 기초가 식품위생으로부터 식품안전으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어서 국내외에서 중국의 식품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식품안전법」을 통한 새로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법률 개정 추진

- 2013년 3월 생산, 가공, 유통 단계의 식품안전을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국가식품약품 관리감독총국; CFDA)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관리 조직체계 개편⁴⁾
- 2013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한 끝에 2015년 4월 신 「식품안전법」을 공포하고 10월 1일자로 시행 함에 따라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자평하는 새로운 식품안전관리감독체계 완성
- 신 「식품안전법」은 구 법률에 비해 ▲식품의 생산·가공·판매 및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의 책임 강화,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혁신 및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수입 농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주체 명시,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특징⁵⁾

□ 최근 유제품 관련 정책 동향

- 중국정부는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 직후부터 유제품의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 2008년 10월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어 멜라민 분유 사건 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낙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과 발전 촉진을 위해 ‘낙농업 정돈 및 진흥 계획 강요’ 제정
 - 2010년: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성 문건을 하달 하고 유제품 안전 관련 국가표준을 대폭 정비
 - 2013년: 영유아용 조제분유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성 문건을 하달

표 4 중국의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화 관련 주요 문건

시기	주요 문건	주요 내용
2008.10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장 64조로 구성 • 유제품의 범위(원유 및 유제품), 관리감독 주체(현(县)급 이상 지방 정부의 축산, 수의, 품질감독검사검역, 공상행정, 식약품관리감독, 위생 담당 부처) 명시(1장 총칙) • 유류(奶类) 생산 가축 사육(2장), 원유 수매(3장), 유제품 생산(4장), 유제품 판매(5장) 단계의 관리감독 방법 규정 •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주체의 검사 실시 방법(6장)과 법률 위반 시 책임(7장) 규정
2008.11	낙농업 정돈 및 진흥 계획 강요 (奶业整顿和振兴规划纲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말 ~ 2011년 10월까지의 업무 추진 목표 제시 • 품질 관리감독 강화: ▲품질 표준체계 완비, ▲검사능력 향상, ▲품질 관리제도 완비 • 소비자의 신뢰도 회복: ▲정보 공개, ▲소비자권익 보호, ▲유제품 관련 지식 보급

자료: 관련 문건을 토대로 필자 정리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 동향”(전형진, 월간 「세계농업」 2014년 4월호(163호), KREI) 참조.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과 시사점”(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2015년 5월호, KREI 중국사무소) 참조.

표 4

중국의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화 관련 주요 문건(계속)

시기	주요 문건	주요 내용
2008.11	낙농업 정돈 및 진흥 계획 강요 (奶业整顿和振兴规划纲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회복 및 육성 강화: ▲제품 반납·환불 처리 완료 및 불합격제품 소각 실시, ▲시장 공급량 보장, ▲시장 질서 정비, ▲학생우유마시기 계획 지속 추진 • 유제품 생산기업의 자질 향상: ▲유제품산업 정비, ▲지속생산 보장, ▲기업관리 수준 제고, ▲유제품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 원유 수매관리 강화: ▲원유 수매소 정비, ▲원유 수매시장 진입장벽 강화, ▲표준화 관리 실시 • 유류(奶类) 생산 가축 사육관리 수준 제고: ▲지원정책 지속 추진, ▲주산지 낙농가 임시구제정책 실시, ▲규모화표준화 사육 추진, ▲사육기술 지도 및 서비스 강화 • 산업화경영 추진: ▲낙농전문생산합작조직 발전 촉진, ▲낙농가에 대한 이익 분배체계 완비, ▲원유 거래행위 규범화 • 유제품업계 지도 및 법률 제정 강화: ▲업계 지도 강화, ▲모니터링 및 경보체계 강화, ▲유제품산업부문의 협회 역할 강화, ▲법률 제정 강화
2010.2	유제품 안전 관련 국가표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식품안전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66개(제품 관련 15개, 생산 규범 2개, 검사방법표준 49개)의 국가표준 공포
2010.9	유제품 품질안전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 加强乳品质量安全工作的通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생산경영 허가 관련 관리 강화: ▲유제품산업, ▲유제품 생산 허가, ▲원유 수매운송 허가, ▲유제품 유통 허가 및 ▲멜라민 생산 유통 관리 강화 • 검사 및 모니터링 평가 강화: ▲원유·원료분유·사료 검사, ▲유제품 출시 및 유통 단계 검사,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검사 효율 제고 • 유제품 이력추적제도 완비: ▲유제품 이력조화시스템 구축, ▲유제품 입고 검사제도 완비, ▲온라인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 영유아용 조제분유 관리감독 강화: ▲HACCP 인증체계 강화, ▲제품 생산공장 주재 관리감독제도 실시, ▲유통단계 관리감독 강화 • 불법 유제품 생산경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유제품 생산 지역 일망타진, ▲감시 및 처벌 강화, ▲주민신고 보상제도 확립 • 유제품 품질안전 주체의 책임 강화: ▲식품안전 주체로서 유제품 생산 기업의 책임 강화,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정부 관련 부처별 책임 강화
2013.6	영유아용 조제분유 품질안전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 (关于进一步 加强婴幼儿配方乳粉质量安全工作的意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목표: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품질안전 수준 제고, ▲국민건강 향상, ▲국내산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 ▲유제품산업 진흥 및 발전 촉진 • 중점 추진 업무: ▲약품 관리방법을 참고하여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용 유제품 생산기업의 1차적 책임 강화, ▲관리감독 강화, ▲법률 위반 시 처벌 강화, ▲사회적 관리감독체계 구축, ▲관련 조치 완비
2016.6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 관리방법(婴幼儿配方乳粉产品 配方注册管理办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장 49조로 구성 • 적용 범위(국내산 및 수입산 영유아용 조제분유), 관리 주체(국가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CFDA) 등 명시(1장 총칙) •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의 신청등록 절차(2장), 라벨표시 및 설명서 내용(3장), 관리감독 방법(4장), 법률위반 시 처벌(5장), 시행 일시(2016.10.1., 6장) 등을 규정

자료: 해당 문건을 토대로 필자 정리

○ 중국의 최대 수입유제품 시장으로 부상한 영유아용 조제분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제도 실시 예정

- 2015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신 「식품안전법」의 규정(81조)에 따라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성분에 대해 문서보존제도(备案制; record keeping system)에서 등록제도(注册制; registering system)로 전환
- 국가약품식품관리감독총국(CFDA)은 지난해 9월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방법(시범실시) 의견 수렴안’을 공포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6월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방법’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방법’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생산기업 당 3개의 성분계열(월령 0~6개월, 6~12개월, 12~36개월)별로 최대 3개, 총 9개로 성분 등록을 제한하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정하여 기존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자세한 내용은 표 5 참조)

표 5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방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이 과도하게 많고 충분한 연구나 과학적 증거가 부족, 또한 브랜드와 배합성분의 혼란 및 과대선전 등으로 소비자가 현혹되고 있고 생산과정에서 성분 변경 등으로 품질안전 문제 존재 • 「식품안전법」에서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제 실시 규정(74조, 81조)
성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용 조제분유 생산 시 사용하는 식품원료와 식품첨가제 및 그 사용량,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제48조)
법률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판매되거나 수입된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성분(2조)
등록 업무 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이 등록 관리업무 총괄 책임, CFDA 내 행정수리부서, 심의평가부서, 조사부서가 각각 등록 신청 수리, 심의평가, 현장조사 업무 수행(5조) •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부처가 CFDA와 공조하여 해당지역의 등록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 수행(5조)
등록 신청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경 내에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판매하는 기업 또는 중국으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출하려는 국외 생산기업(7조) • 신청인은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 검사능력을 갖추고, 영유아용 조제식품 GMP 인증 및 HACCP 인증 조건을 충족하며, 출시 제품에 대해 관련 법률법규와 영유아용 조제분유 안전 관련 국가표준이 규정한 항목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7조)
등록 절차 및 처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 수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심의평가부서로 신청자료 송부(12조) • 심의평가: 신청자료 접수 후 60일 이내 심사 완료(특수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 기간에 현장조사, 표본추출검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심의평가부서의 통지 후 20일 이내 완료 및 보고서 작성(14조) - 표본추출검사: 심의평가부서의 위탁 후 30일 이내 완료 및 보고서 작성(15조) ※국외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표본추출검사 기한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16조) • 행정비준: CFDA가 등록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등록 여부 결정(20조) • 등록 여부 통보 및 증서 발급: CFDA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등록 증서 발급 또는 등록 불가 통보(20조)

자료: 관련 문건을 토대로 필자 정리

표 5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 등록방법' 주요 내용(계속)

구분	주요 내용
등록 절차 및 처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 제기: 신청인이 등록 불가 서면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신청(18조)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 신청 시 심의평가부서는 재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 완료 후 통보(18조) • 신청자료 보완: 심의평가부서는 신청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괄 통보. 신청인은 3개월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되 이 기간은 심의평가 시간 계산에서 제외(19조)
등록 신청 서류 및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서, 신청인 자격 증명서, 원재료 및 부재료의 품질안전 표준, 성분 연구개발 보고서, 생산과정 설명서, 제품검사 보고서, 연구개발능력·생산 능력·검사능력 증명자료, 기타 성분의 과학성·안전성 입증자료(8조) • 요구 사항: 성분계열을 영아용 조제분유(월령 0~6개월; 1단계), 대영아용 조제분유(월령 6~12개월; 2단계), 유아용 조제분유(월령 12~36개월; 3단계) 등 3개 계열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업 당 성분계열별로 최대 3개, 총 9개로 성분 등록 개수 제한(9조) – 만약 한 기업이 동일 성분계열로 2개 이상의 성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성분 간 차이가 명확해야 하고 과학적 입증도 필요(9조) • 기업집단에 속한 하나의 자회사가 이미 성분을 등록한 경우, 동일 기업집단의 또 다른 자회사가 이 성분을 사용하여 분유 생산 가능. 단, 또 다른 자회사는 성분 등록 및 생산허가 취득 필요(10조) • 등록증서 유효 기간은 5년(23조)
라벨 및 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등록 신청시 라벨과 설명서 견본 및 관련 설명증명자료 제출 필요. 라벨과 설명서 기재 내용은 등록된 성분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등록번호도 기재(30조) • 원료(원재료) 및 영양성분 표시: 제품 명칭에 동물성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벨에 원료(원재료)의 동물성 유래 표시. 동물성 유래 원료가 2개 이상 사용된 경우 각각의 사용 비율 표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원재료)는 사용량 순서대로 표시 – 영양성분은 영유아용 조제분유 안전 관련 국가표준이 규정한 영양소 순서대로 표시하고,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광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원료(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구체적으로 원산지명 또는 원산지국가를 표시해야하며, “수입원료”, “국외목장원료”, “생태목장”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32조) • 제품의 대상 월령 또는 해당 단계(1단계, 2단계, 3단계) 표시(33조) • 라벨 또는 설명서 상 기재 금지 내용: ▲질병의 예방·치료 기능, ▲보건기능 명시 또는 암시, ▲아이큐 향상, 면역력(저항력) 증강, 장 보호 등과 같은 기능성 명시 또는 암시 문구, ▲식품안전표준 상 함유(사용) 금지한 물질에 대해 “무첨가”, “무함유”, “0첨가” 등의 문구로 미사용(무함유)를 강조하는 내용, ▲허위·과장 표현, 과학적 원리에 배치되거나 절대화하는 내용, ▲등록 성분과 불일치하는 내용(34조)
등록 변경 및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변경 및 처리 시간: 등록증서 유효기간 내에 증서 및 첨부자료 상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CFDA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25조). CFDA는 심의·평가 부서의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변경 승인 또는 불가 결정 통보(26조) • 등록 연장 및 처리 시간: 등록증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CFDA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등록 연장 신청. CFDA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연장 승인 또는 불가 결정 통보(27조)

자료: 관련 문건을 토대로 필자 정리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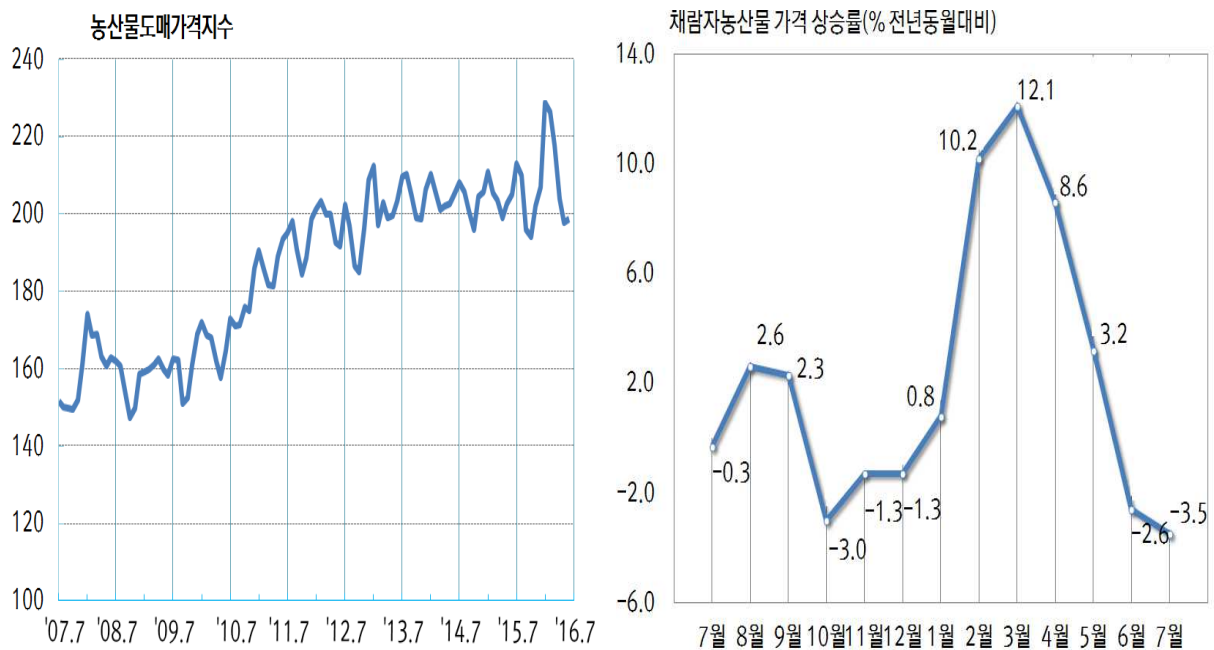
- 중국의 최근 유제품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반대로 소비잠재력이 커 향후 유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임을 시사
 - 최근 들어 농촌지역은 유통환경이 개선되면서 액상유제품의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액상유제품 소비 위주에서 벗어나 비액상유제품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중국 유제품 소비전망(2016~2025) 결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25년에 약 41kg에 달할 전망
- 유제품 관련 식품안전사고의 여파로 중국의 유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입 유제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 이후 분유 및 영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신 소비계층으로 부상한 ‘여성, 빠링호우(80后), 지우링호우(90后)’의 소비패턴 반영
 - 특히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으로 향후 영유아 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수입 영유아용 조제분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국산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생우유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유제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출확대 전략을 모색할 필요
- 중국 유제품 시장의 확대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요인이지만 중국정부가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식품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 유제품산업 보호를 위해 SPS, TBT 등 비관세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시장 및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대비 필요
 - 한국산 유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무적이지만 중국의 수입 유제품 시장 점유율은 1.8% 수준(10위)으로 낮고 유럽의 낙농 선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
 - 유제품의 경우 중국소비자들의 품질안전 요구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품질경쟁력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점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
 - 특히 2015년 신 「식품안전법」 시행을 계기로 식품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SPS 및 TBT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유의하여 관련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최근 한국산 생우유의 대중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며, 최대 수출품목인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관련하여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TBT 조치에 철저한 대비 필요

가격 동향

◆ 농산물⁶⁾ 도매시장가격

- 2016년 7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5%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0% 하락
- － 채람회(菜篮子)농산물의 2016년 7월 도매시장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5%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5% 하락

그림 10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100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6) 식량 5개 품목(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4개 품목(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 채소 26개 품목(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青椒), 토마토, 콩꼬투리(豆角), 무, 당근, 양파, 감자,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花菜), 브로콜리), 과일 7개 품목(부사사과, 압리(鸭梨),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5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5개 품목(잉어, 민물연어(鲢鱼), 초어(草鱼), 붕어, 갈치) 등 총 52개 품목

- 품목별 2016년 7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6월에 비해서 축산물 가격이 다소 하락.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마늘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복숭아를 제외한 과일류와 엽근 채소 가격은 하락.

표 6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6년 3월 ~ 7월)

단위: 원, %

품목		2016년					7월 증감률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8,062	17,609	17,739	17,569	17,022	-3.1	-7.2
	콩(1kg)	981	949	970	953	916	-3.9	-10.2
엽근 채소	배추(10kg)	4,761	3,359	2,065	1,555	1,948	25.3	-23.9
	무(18kg)	5,528	5,887	5,559	4,995	4,768	-4.5	-6.6
	양배추(8kg)	5,204	3,734	1,838	1,301	1,477	13.5	-44.3
	당근(20kg)	10,430	13,189	16,410	10,888	7,178	-34.1	-18.5
	감자(20kg)	10,285	12,270	12,496	8,802	6,494	-26.2	-21.3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701	2,598	2,687	2,687	2,573	-4.3	-12.3
	양파(kg)	829	700	427	345	313	-9.3	-12.9
	마늘(kg)	1,919	1,846	1,684	1,644	1,726	5.0	68.0
	대파(kg)	1,417	1,245	962	633	443	-30.1	-30.1
	쪽파(kg)	1,234	918	731	656	709	8.2	-18.7
과일	사과(부사, 15kg)	16,981	15,514	15,808	16,332	16,663	2.0	-21.0
	배(풍수, 15kg)	12,156	11,191	11,392	11,984	10,869	-9.3	-19.5
	복숭아(kg)	2,858	2,427	1,943	1,050	822	-21.7	11.9
	포도(거봉, 5kg)	7,069	7,293	9,507	10,826	8,536	-21.2	-7.1
	감귤(만다린, kg)	758	778	889	889	913	2.7	-16.0
	감(10kg)	9,195	7,426	8,187	8,060	7,383	-8.4	-3.0
과채	딸기(2kg)	5,593	4,045	3,914	4,291	5,397	25.8	-7.2
	토마토(10kg)	9,558	9,194	5,835	3,641	3,333	-8.5	-22.0
	오이(kg)	914	546	347	295	367	24.5	-12.5
	수박(kg)	845	843	652	430	385	-10.5	21.4
축산물	쇠고기(kg)	9,767	9,420	9,489	9,324	9,044	-3.0	-8.6
	돼지고기(kg)	4,550	4,602	4,797	4,748	4,394	-7.5	6.8
	닭고기(kg)	2,780	2,698	2,727	2,651	2,529	-4.6	-4.6
버섯	느타리버섯(2kg)	1,893	1,821	1,910	1,965	2,205	12.2	-0.9
	새송이버섯(2kg)	3,071	2,539	2,284	2,153	2,109	-2.0	-19.7
	팽이버섯(2kg)	2,860	2,305	2,093	2,040	2,017	-1.1	-22.3
	표고버섯(2kg)	3,380	3,122	3,214	3,235	3,302	2.1	-19.5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 (<http://www.agri.gov.cn>)

◆ 소비자물가

- 2016년 7월 소비자물가는 6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 7월 식품가격 상승은 육류와 수산물이 주도(각각 11.3%, 5.8% 상승). 신선채소, 조란의 경우 각각 4.3%, 2.0% 하락

그림 11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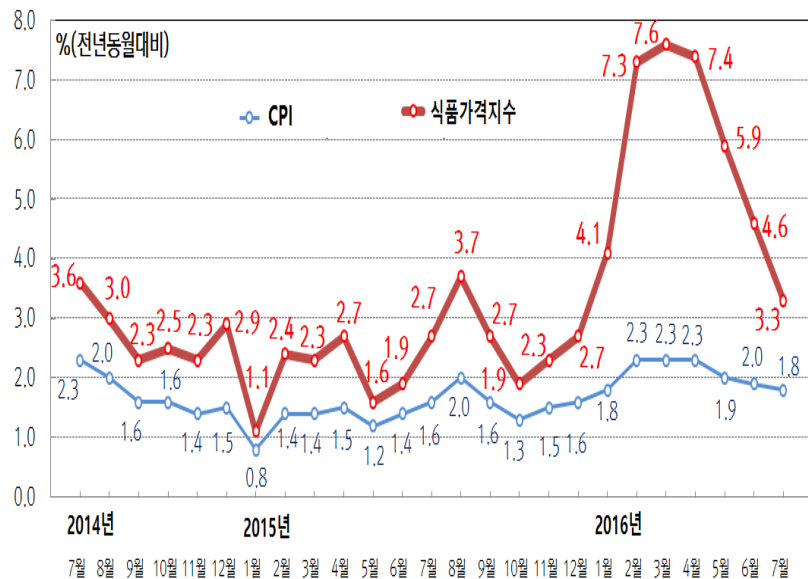


표 7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6.4	'16.5	'16.6	'16.7	'16.4	'16.5	'16.6	'16.7
소비자물가지수(CPI)	-0.2	-0.5	-0.1	0.2	2.3	2.0	1.9	1.8
◦ 식품·담배 및 주류	-0.9	-1.8	-0.9	-0.1	5.9	4.7	3.7	2.8
식품	-1.4	-2.7	-1.4	-0.2	7.4	5.9	4.6	3.3
- 식량	0.0	0.1	0.0	0.0	0.4	0.6	0.6	0.4
- 육류	2.2	1.6	0.8	-1.3	20.1	20.8	19.2	11.3
- 조란(乌卵)	-1.0	-0.1	-1.0	-1.5	-1.6	-0.2	0.3	-2.0
- 수산물	0.5	0.2	1.1	0.6	4.1	4.9	5.5	5.8
- 신선채소	-12.5	-21.5	-12.5	3.8	22.6	6.4	-6.5	-4.3
- 신선과일	-1.0	-1.3	-2.5	-1.9	-7.9	-7.6	-3.4	0.5
◦ 의류 및 복장	0.1	0.1	-0.3	-0.4	1.5	1.5	1.4	1.4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0	0.0	0.0	0.5	0.6	0.6	0.6
◦ 의료보건	0.3	0.2	0.5	0.7	3.2	3.5	3.8	4.3
◦ 교통 및 통신	0.1	0.3	0.7	0.1	-2.4	-2.6	-1.8	-1.6
◦ 교육·문화 및 오락	0.1	0.1	0.3	1.0	1.2	1.2	1.4	1.6
◦ 주택(거주)	0.2	0.1	0.1	0.1	1.4	1.6	1.6	1.6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1	0.3	0.1	1.4	1.7	2.2	2.6	4.4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agri.gov.cn>)

무역 동향

◆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6년 7월 농산물 수출액은 49.0억 달러로 지난 6월에 비해 8.8%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2.8% 증가

표 8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6년 4월 ~ 7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6년					7월 증감률		
		4월	5월	6월	7월	합계 (1~7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47	47	55	56	323	1.8	21.7	13.7
02류	육과 식용설육	72	78	76	78	494	2.6	-13.3	-20.3
04류	낙농품 · 조란 · 천연꿀	47	44	44	45	334	2.3	-18.2	-1.8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50	158	162	140	990	-13.6	-1.4	-8.3
06류	산수목 · 꽃	27	27	23	27	186	17.4	35.0	12.7
07류	채소	759	930	911	961	5,734	5.5	21.6	14.8
08류	과실 · 견과류	293	256	273	453	2,507	65.9	31.3	31.9
09류	커피 · 차 · 향신료	238	281	250	236	1,666	-5.6	12.4	20.1
10류	곡물	35	40	18	18	175	0.0	125.0	16.7
11류	제분공업제품	50	44	44	41	322	-6.8	-8.9	-4.2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 · 약용식물, 사료	230	215	194	187	1,572	-3.6	10.0	-9.9
13류	식물성엑스	115	128	96	111	769	15.6	13.3	4.3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1	10	9	10	75	11.1	0.0	1.4
15류	동식물성유지	54	48	50	47	346	-6.0	-13.0	-8.0
16류	육 · 어류조제품	610	717	659	718	4,369	9.0	14.1	-1.5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42	143	137	151	948	10.2	17.1	9.6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32	31	25	25	206	0.0	-13.8	-11.2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23	133	130	135	869	3.8	11.6	2.1
20류	채소 · 과실 조제품	576	667	596	617	4,182	3.5	9.0	-1.1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45	280	249	265	1,791	6.4	6.0	11.1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92	213	153	198	1,301	29.4	12.5	24.0
23류	조제사료	215	246	238	254	1,605	6.7	10.0	0.2
24류	담배	138	131	113	127	736	12.4	-2.3	-4.5
합 계		4,401	4,867	4,505	4,900	31,500	8.8	12.8	5.6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月刊)」 第320期 ~ 第323期.

○ 2016년 7월 농산물 수입액은 4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7.0%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1.2% 감소

－ 7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02류(20.8%), HS 15류(10.9%), HS 04류(9.9%), HS 19류(7.9%), HS 09류(7.7%), HS 22류(7.5%)

표 9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16년 4월 ~ 7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6년					7월 증감률		
		4월	5월	6월	7월	합계 (1~7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62	7	32	45	196	40.6	21.6	-37.2
02류	육과 식용설육	794	969	1,084	1,025	5,935	-5.4	74.9	65.6
04류	낙농품 · 조란 · 천연꿀	269	274	479	491	2,652	2.5	64.8	26.2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44	58	281	275	779	-2.1	554.8	174.3
06류	산수목 · 꽃	19	28	47	47	178	0.0	176.5	48.3
07류	채소	169	166	19	16	893	-15.8	-93.4	-52.9
08류	과실 · 견과류	589	642	191	121	3,184	-36.6	-71.3	-22.6
09류	커피 · 차 · 향신료	39	54	466	378	1,046	-18.9	626.9	395.7
10류	곡물	687	719	47	60	2,995	27.7	-94.6	-49.2
11류	제분공업제품	100	70	473	315	1,182	-33.4	303.8	99.3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 · 약용식물, 사료	3,059	3,467	61	51	13,832	-16.4	-98.8	-39.8
13류	식물성엑스	18	20	20	15	126	-25.0	-11.8	-6.0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6	24	21	17	131	-19.0	13.3	6.5
15류	동식물성유지	524	436	506	539	3,568	6.5	-44.8	-22.8
16류	육 · 어류조제품	10	13	13	15	90	15.4	-37.5	-38.8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07	77	164	173	801	5.5	68.0	-29.6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38	45	46	44	312	-4.3	-32.3	-25.0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90	337	359	388	2,330	8.1	34.3	23.7
20류	채소 · 과실 조제품	71	82	76	79	511	3.9	-4.8	7.1
21류	기타 조제식품	187	166	174	159	1,156	-8.6	2.6	33.0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391	507	435	368	2,770	-15.4	-17.7	21.7
23류	조제사료	298	299	266	267	1,707	0.4	-59.4	-29.7
24류	담배	489	117	47	50	1,225	6.4	-12.3	-2.2
합 계		8,270	8,577	5,307	4,938	47,577	-7.0	-51.2	-17.7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月刊)」 第320期 ~ 第323期.

◆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6년 7월 쌀, 밀, 옥수수 3대 곡물의 수출량은 30.9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3%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76.0% 감소
- －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21.6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69.9%를 차지하며, 전월에 비해 16.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2.4% 증가. 옥수수는 9.3천 톤을 수출
- － 7월에 북한으로 3.6천 톤을 수출하여 전체 쌀 수출량의 16.7% 차지

표 10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16년 5월 ~ 7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5년	2016년				7월 증감률		
			5월	6월	7월	합계 (1~7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전체	한국	163.1	18.7	6.3	7.2	68.2	14.3	0.0	23.9
	북한	17.1	1.2	1.9	3.6	7.8	89.5	-20.7	-7.4
	일본	36.5	12.3	-	-	-	-	-	-
	홍콩	21.2	1.5	1.6	2.0	10.7	25.0	0.0	0.0
	몽골	16.7	1.3	1.6	1.3	5.1	-18.8	0.0	0.0
	기타	12.4	2.4	7.1	7.5	20.1	5.6	247.2	-43.2
	합 계	267.0	37.4	18.5	21.6	136.7	16.8	222.4	10.8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17.1	1.2	1.9	3.6	7.7	89.5	-20.7	-8.6
	일본	36.0	2.0	-	-	-	-	-	-
	몽골	2.4	1.3	1.6	1.3	5.0	-18.8	0.0	0.0
	한국	7.2	3.7	6.3	-	-	-	-	-
	홍콩	20.6	1.5	1.6	2.0	10.5	25.0	217.5	-6.9
	기타	28.1	2.4	1.3	0.5	7.3	-61.5	-67.1	-59.2
	합 계	109.2	22.1	12.7	7.4	69.5	-41.7	10.6	12.1
장립종쌀(백미)	합 계	1.3	0.0	5.7	6.9	12.8	21.1	0.0	1,388.4
밀	합 계	5.3	0.0	0.0	0.0	10.6	0.0	0.0	255.7
옥수수	북한	11.6	0.2	0.6	0.2	2.1	-66.7	-69.2	-71.4
	미국	7.5	0.8	0.8	0.2	2.2	-75.0	0.0	0.0
	인도네시아	51.1	3.0	0.3	3.4	26.7	1,033.3	0.0	0.0
	기타	32.5	6.5	11.1	5.5	33.6	-50.5	54,900.0	10,400.0
	합 계	102.7	10.5	12.8	9.3	64.6	-27.3	1,309.1	744.4
대두	한국	26.9	3.5	1.9	0.0	16.2	-100.0	-100.0	-26.8
	일본	33.0	4.1	2.3	1.6	21.1	-30.4	7.4	-10.5
	미국	42.5	2.9	4.1	3.5	18.2	-14.6	-50.6	-39.5
	기타	31.2	3.4	3.7	1.6	21.3	-56.8	11.1	9.7
	합 계	133.6	13.9	12	6.7	76.8	-44.2	-35.8	-19.3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607.

표 11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16년 5월 ~ 7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5년	2016년				7월 증감률		
			5월	6월	7월	합계 (1~7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쌀 전체	태국	931.5	123.9	51.3	26.5	555.9	-48.3	-66.0	31.0
	베트남	1,794.3	168.9	106.6	105.7	960.8	-0.8	-54.3	-8.9
	파키스탄	442.7	128.6	55.0	10.1	513.3	-81.6	-14.0	219.8
	기타	173.4	11.0	7.3	6.3	110.7	-13.7	47.2	9.0
	합 계	3,341.9	432.4	220.2	148.6	2,140.7	-32.5	-54.3	22.9
장립종쌀 (백미)	태국	687.7	102.3	31.4	6.7	360.8	-78.7	-89.6	17.9
	베트남	658.6	57.4	40.9	31.3	338.7	-23.5	-73.5	-28.0
	파키스탄	386.1	116.5	51.1	6.6	432.5	-87.1	-30.3	250.2
	기타	104.8	10.8	6.0	3.8	91.6	-36.7	38.2	23.5
	합 계	1,837.2	287.0	129.4	48.4	1,223.6	-62.6	-75.1	25.6
중단립종쌀 (백미)	태국	22.4	6.1	4.1	0.3	28.4	-92.7	-87.6	46.7
	베트남	622.7	97.7	52.2	51.1	533.2	-2.1	39.7	147.1
	파키스탄	0.0	-	-	-	-	-	-	-
	기타	0.6	0.3	0.4	0.0	2.1	-100.0	-100.0	1,005.3
	합 계	645.8	104.1	56.7	51.4	563.7	-9.3	31.8	139.5
밀	호주	1,255.1	169.2	218.1	115.6	924.5	-47.0	-48.4	7.2
	미국	602.1	148.0	64.5	59.8	313.2	-7.3	1,734.4	64.7
	캐나다	991.9	77.6	166.6	115.5	607.5	-30.7	116.5	6.0
	기타	123.7	44.2	28.4	14.9	235.9	-47.5	-27.3	236.8
	합 계	2,972.7	439.1	477.6	305.8	2,081.2	-36.0	1.5	22.7
보리	호주	4,361.5	379.7	370.1	309.4	1,784.2	-16.4	-15.2	-49.3
	캐나다	1,041.9	71.5	66.0	32.2	513.7	-51.2	-80.9	-31.0
	우크라이나	819.9	-	-	-	-	-	-	-
	프랑스	4,423.8	61.9	44.6	18.7	251.5	-58.1	-97.5	-88.4
	기타	84.3	0.0	1.0	0.0	1.1	-100.0	-100.0	-99.5
	합 계	10,731.3	513.1	481.7	360.3	2,550.5	-25.2	-71.9	-61.6
옥수수	미국	461.8	203.4	298.3	387.5	2,118.1	29.9	140.0	707.8
	라오스	124.7	-	0.3	3.4	-	1,033.3	220.8	-
	불가리아	160.0	-	-	-	-	-	-	-
	우크라이나	3,852.0	1,030.0	1.2	5.9	2,652.1	391.7	0.0	0.0
	미얀마	48.3	-	-	9.7	-	-	355.4	-
	기타	83.1	0.6	3.1	0.7	64.7	-77.4	-99.9	-98.1
	합 계	4,730.0	1,234.0	302.9	407.2	4,853.5	34.4	-63.2	29.1
대두	미국	28,411.5	552.1	101.6	4.0	15,776.6	-96.1	-93.0	-7.2
	캐나다	1,070.9	14.1	1.9	7.7	699.3	305.3	366.7	44.9
	브라질	40,126.8	7,016.7	6,874.9	5,977.9	26,832.0	-13.0	-6.1	19.7
	아르헨티나	9,437.4	64.0	486.6	1,621.4	2,493.2	233.2	-28.8	-29.1
	기타	374.7	17.1	99.8	146.8	359.8	47.1	-81.5	-70.9
	합 계	81,739.0	7,664.0	7,564.8	7,757.8	46,319.1	2.6	-18.3	3.7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中国粮油产品进出口数据」 201607.

- 2016년 7월 대두 수출량은 6.7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44.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35.8% 감소
- 2016년 7월 쌀, 밀, 보리, 옥수수 4대 곡물의 수입량은 1,221.9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7.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59.5% 감소
 -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옥수수 407.2천 톤(3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리가 360.3천 톤(29.5%), 밀 305.8천 톤(25.0%), 쌀 148.6천 톤(12.2%) 순
- 2016년 7월 최대 수입 곡물인 옥수수는 전월에 비해 34.4%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63.2% 감소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⁷⁾ 2016년 7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32.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3% 감소
 - － 7월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99.8천 톤으로 67.2%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현미·쇄미 등이 32.8%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48.5%와 51.5% 차지
 - － 7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71.1%, 태국 17.8%, 파키스탄 6.8% 순
 - － 7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FOB)은 미국산 498.8달러, 파키스탄산 404.8달러, 베트남산 368.3 달러, 태국산 419.3달러⁸⁾.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1.4%, 2.8%, 1.4%, 0.1%
- 보리의 2016년 7월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25.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71.9% 감소
- 2016년 7월 밀은 수입량이 전월에 비해 36.0%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5% 증가
 - － 7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37.8%, 캐나다 37.8% 차지
- 2016년 7월 대두 수입량은 7,757.8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2.6%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8.3% 감소
 -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이 77.1%로 절반 이상을 차지

7)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6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50%(266만 톤)를 차지

8) 쇄미율이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5%이며, 미국산은 4~5%. 国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场价格报告」(2016.07.01~2016.07.29)

◆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2016년 7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6.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47.2%, 채소 22.4%, 식량 8.6%, 특용·잠사 6.7%, 과실 2.9%
 - 상위 10개 품목: 혼합조제식료품(10.4%),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7.8%), 쌀(4.9%), 기타채소(4.7%), 전분박(4.0%), 김치(3.7%), 고추(3.5%), 기타소오스제품(2.8%), 미늘(2.7%), 기타과실(2.5%) → **47%**

표 12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6년 6월 ~ 7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6년			7월 증감률		
			6월	7월	합계 (1~7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9,092	10,046	79,085	-47.4	-15.7	-11.4
		서류	571	558	3,616	-2.3	-32.9	-55.2
		두류	9,212	4,664	54,726	-49.4	1.9	-8.9
		전분	2,784	1,913	13,951	-31.3	-5.2	-15.2
		계	31,659	17,181	151,278	-45.7	-11.2	-13.0
	채소		48,237	44,845	341,717	-7.0	-5.7	7.4
	과실		5,957	5,735	40,010	-3.7	-3.8	-4.5
	화훼		1,285	833	11,991	-35.2	-29.0	-9.3
	버섯		1,576	1,463	15,477	-7.2	-24.9	-1.2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11,339	10,494	82,036	-7.5	-22.8	-16.3
		차류	106	274	1,272	158.5	-20.8	-9.1
		연초류	1,947	277	5,064	-85.8	-26.3	324.1
		인삼류	125	286	2,572	128.8	28.3	50.7
		한약재	801	1,016	7,071	26.8	23.8	40.7
		잠사류	1,188	956	12,627	-19.5	-47.4	-9.1
		계	15,506	13,303	110,643	-14.2	-22.5	-8.8
	농산가공품		95,145	94,414	788,361	-0.8	-2.4	14.9
	소 계		199,365	177,774	1,375,606	-10.8	-6.4	0.4
축 산 물	산동물		252	394	4,421	56.3	21.2	114.9
	육류		2,746	1,779	19,674	-35.2	-30.8	4.2
	난류		151	184	1,172	21.9	-8.0	-7.1
	낙농품		-	0	9	-	-100.0	-95.6
	기타 축산물		12,064	19,708	56,540	63.4	15.9	8.4
	소 계		15,213	22,065	81,816	45.0	9.7	9.8
합 계			214,578	199,839	1,457,422	-6.9	-4.9	0.9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 2016년 7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8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1.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63.4%, 낙농품 11.3%, 과실 11.8%, 기타축산물 7.7%, 채소 2.9%, 인삼류 1.9%
- 상위 10개 품목: 자당(11.3%), 조제분유(9.1%), 라면(8.5%), 혼합조제식료품(8.1%), 과실혼합물(5.5%),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5.2%), 비스킷(4.7%), 기타음료(4.2%), 기타베이커리제품(3.1%), 단일과실 조제품(2.6%) → 62.3%

표 13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6년 6월 ~ 7월)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6년			7월 증감률		
			6월	7월	합계 (1~7월)	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421	195	2,423	-53.7	6.6	45.4
		서류	158	143	891	-9.5	25.4	98.4
		두류	19	27	286	42.1	170.0	-35.1
		전분	0	2	9	0.0	-77.8	-50.0
		계	598	367	3,441	-38.6	16.1	33.6
	채소		1,740	2,319	8,468	33.3	-10.4	-11.0
	과실		9,386	9,448	53,418	0.7	71.3	21.2
	화훼		25	43	295	72.0	-53.8	-93.4
	버섯		32	0	32	-100.0	0.0	3,100.0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36	40	166	11.1	21.2	-67.6
		차류	73	30	356	-58.9	-28.6	-37.7
		연초류	0	0	4,891	0.0	-100.0	5.6
		인삼류	1,264	1,521	8,112	20.3	-51.8	-67.0
		한약재	0	20	76	0.0	0.0	-45.7
		참사류	91	2	264	-97.8	0.0	26,300.0
		계	1,464	1,613	13,865	10.2	-51.0	-54.5
	농산가공품		51,060	50,529	298,827	-1.0	18.5	-11.7
	소 계		64,305	64,319	378,346	0.0	18.1	-11.9
축 산 물	산동물		0	0	42	0.0	0.0	2,000.0
	육류		238	287	4,735	20.6	-61.7	-64.9
	난류		-	-	-	-	-	-
	낙농품		11,860	8,980	53,344	-24.3	18.2	-16.7
	기타 축산물		4,504	6,173	25,618	37.1	-17.7	-19.9
	소 계		16,602	15,440	83,739	-7.0	-2.6	-23.6
합 계			80,907	79,759	462,085	-1.4	13.5	-14.3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표 14

2016년 7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혼합조제식료품	20,856	10.4	자당	9,008	11.3
2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15,490	7.8	조제분유	7,223	9.1
3	쌀	9,807	4.9	라면	6,744	8.5
4	기타채소	9,482	4.7	혼합조제식료품	6,438	8.1
5	전분박	7,982	4.0	과실혼합물	4,359	5.5
6	김치	7,316	3.7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4,176	5.2
7	고추	7,035	3.5	비스킷	3,726	4.7
8	기타소오스제품	5,504	2.8	기타음료	3,380	4.2
9	마늘	5,413	2.7	기타베이커리제품	2,449	3.1
10	기타과실	5,072	2.5	단일과실조제품	2,111	2.6
11	당근	4,981	2.5	채소종자	2,037	2.6
12	당면	4,954	2.5	기타과실	1,991	2.5
13	참깨	4,325	2.2	커피조제품	1,814	2.3
14	물	3,873	1.9	맥주	1,669	2.1
15	개 사료	3,719	1.9	가죽	1,454	1.8
16	한약재 기타	3,643	1.8	기타소오스제품	1,427	1.8
17	땅콩	3,424	1.7	생우유	1,419	1.8
18	팥	3,343	1.7	캔디	1,058	1.3
19	기타식물성액즙	3,114	1.6	아이스크림	1,042	1.3
20	맥주	2,764	1.4	기타설탕과자	995	1.2
21	기타당	2,690	1.3	홍삼	886	1.1
22	비스킷	2,344	1.2	소주	873	1.1
23	기타사료용조제품	2,105	1.1	유자	872	1.1
24	딸기	1,881	0.9	기타당	743	0.9
25	배합사료	1,760	0.9	물	738	0.9
26	고구마전분	1,723	0.9	곡류조제품	724	0.9
27	혼합조미료	1,708	0.9	인스턴트면	641	0.8
28	기타채유종실	1,579	0.8	기타식물성점질물	477	0.6
29	기타코코아조제품	1,544	0.8	고추장	445	0.6
30	결구상치	1,512	0.8	기타식물성액즙	440	0.6
31	기타파스타	1,498	0.7	초코렛	385	0.5
32	효소	1,286	0.6	방향성물질	383	0.5
33	기타사료	1,198	0.6	기타장	341	0.4
34	파	1,188	0.6	빵	294	0.4
35	캔디	1,156	0.6	홍삼조제품	280	0.4
	합 계	157,269	78.7	합 계	73,042	91.6

자료: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